



# 일본판 리스터연금(안) 제출배경과 주요내용

이상우 수석연구원

## 요약

■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축소에 따른 공백을 개선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한 ‘장수안심연금’ 도입(안)을 일본 정부에 공식 제출함. 동 연금은 개인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월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정부가 월 3천 엔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고 종신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식 보충형 사적연금제도임. 독일과 일본판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축소 시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확대 사례로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공·사 연금제도 역할분담 확대를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한 ‘장수안심연금’ 도입(안)을 2월 19일 정부에 공식 제출함.<sup>1)</sup>

- 독일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시행한 정부 보조금 지급의 보충형 개인연금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유리한 제도임.
- 이에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사회보장개혁을 위한 법률 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음.

■ 장수안심연금(안)의 주요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핵심 배경은 2015년부터 거시경제슬라이드제도<sup>2)</sup> 시행으로 연금급여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연금소득대체율<sup>3)</sup>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됨.
- 둘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시장 창조) 방안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역할분담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보험업계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하였음.

1) 日本生命保險協會(2016. 2), 「公的年金を補完する長寿安心年金の創設」.  
 2)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액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입자 수 감소, 수명연장증가율 등을 반영하는 연금조정프로그램.  
 3) 평균소득 부부가구 기준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14년 62.7%에서 2058년 최저 42.0%로 20.7%p 감소할 전망이다(厚生労働省(2014. 6), 平成26年財政検証結果).

- 셋째, 일본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등 조세감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 넷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개인연금을 포함한 생명보험시장 정체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 차원에서 신시장 개척 및 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 개발이 요구됨.

■ 장수안심연금은 노후소득확보에 대한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충형 사적연금제도임.

- 핵심 기능은 <표 1>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소득의 2.9%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납입보험료 금액에 관계없이 월 3천 엔의 보조금 지급과 세제적격 요건을 갖출 경우 일정 한도 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 주요 특징은 40년 납입기간과 원금보장, 공적연금과 같은 65세 수급연령 도래 시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지가산세 부담 조건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수급개시 10년 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10년 지급보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임.
- 독일과 주요 차이점은 일본 제도가 사실상 전 국민(자영업자, 주부, 공무원 가능)을 대상으로 하고, 유족보장 기능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임.

<표 1> 일본 장수안심연금제도(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제안내용
가입범위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사실상 전 국민대상)
개발방식	개인연금상품, 기업의 종업원 기여형 연금(개인형DC)
보조금액	소득에 관계없이 월 3,000엔 정액
납입기간	원칙적으로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평준보험료 방식(일시납 검토 중)
중도인출	중도인출 가능(단, 보조금+이자 국고 반납)
급부지급	피보험자 생존 시 연금 지급보증(일정액 연금 지급보증)
수급연령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동일하게 65세(단, 조기수령, 수령연기 가능)
수급 중 사망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단, 10년간 지급보증)
원금보장	납입보험료와 보조금을 포함한 총적립금의 원금보장
소득공제	세제적격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혜택 제공

자료: 日本生命保險協會(2016. 2), 「公的年金を補完する長寿安心年金の創設」 주요 내용 요약.

■ 현재, 일본 정부가 개인의 자조노력을 유도하고 공적연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장수안심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독일과 일본판 리스티어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연금소득대체율 축소 시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의 중요한 대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kiri](#)